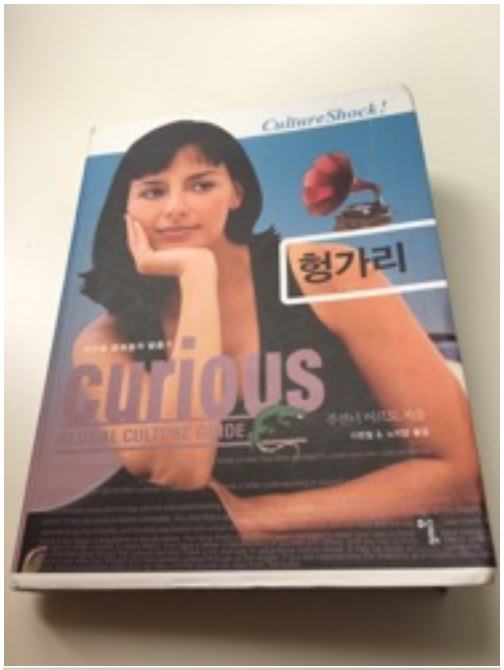
헝가리 집시(로마니)족 선교보고 / 기도편지

2017년 8월 8일
박완주 박미영 선교사

Legeslegmegszentségteleníthetelenebbeiteknek!

"이 사람들은 왜 띄어쓰기를 안 할까?"



헝가리에 살면서 이렇게 긴 단어를 볼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이게 한 단어냐구요? 물론입니다. 제가 헝가리에 부임하면서 읽었던 주전너 어르도(Zsuzsanna Ardó)라는 여자 분이 쓴 <헝가리>라는 책(옆 사진)에 소개된 단어에요. "과연 한 단어로 보이는가? 단어의 앞뒤에 모두 접사가 붙은 완벽한 단어의 한 가지 사례이다"(p. 180). 주전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뜻하는 gyerek(제렉)이라는 단어의 예를 들어 헝가리어가 얼마나 어려운 언어인가를 설명합니다.

gyerek	아이
gyerekek	아이들
gyerekeim	내 아이
gyerekeimé	내 아이의 것
gyerekeiméi	내 아이의 것들
gyerekeiméiért	내 아이의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 단어의 경우 우리 말로는 네 번에 걸쳐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헝가리어는 다 붙여서 한 단어로 쓰고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한 단어임에도 이렇게 긴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제 입에서는 늘 "아니, 이 사람들은 도데체 왜 띄어쓰기를 안 할까?"라는 투덜거림이 나옵니다.

서두에 소개한 단어 역시 한 단어로 주전너 어르도는 그 뜻을 "당신이 최상의 능력으로 신성모독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줍니다. 우리 말로 하면 여섯 번이나 띄어쓰기를 한 여섯 단어인데 헝가리어로는 띄어쓰기가 필요 없는 '완벽한' 한 단어인 것입니다.

주전너 어르도는 헝가리인으로 헝가리,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 및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및 저술가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학 및 언어학 전문가 조차도 헝가리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8월 19일이면 저희가 이곳에 부임한지 만으로 8년이 되는 날입니다. 8년을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헝가리어는 여전히 저희에게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헝가리에서 사역을 하며 사느냐구요?

선교를 위해서 현지어를 잘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요. 그렇지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현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철에 오는 단기팀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단기팀 멤버들은 헝가리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이곳에서 언어를 초월한 그 무엇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갔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그 무엇!
언어를 초월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능력,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잊혀진 영혼인 집시족을 향한 '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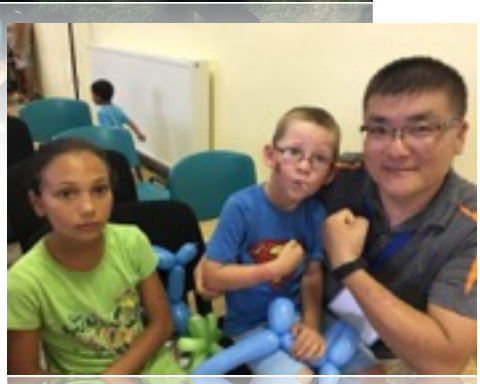
1. '그 사랑'을 갖고 미국에서 단기팀이 왔었습니다.

북가주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님) 단기팀 32명입니다. 중고등부 20명에 어른 12명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집시촌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기팀은 한 주간 정도 사역하고 돌아가지만 선교지에는 이들이 끼치고 간 뜨거운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런 단기팀 사역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팀이 잘 준비해서 오면 성령께서 현지에 맞게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학교(VBS), 드라마와 스킷, 전도심방과 전도집회 등 1년 동안 알차게 훈련하며 준비한 이들을 성령께서는 이번에 헝가리 집시촌에 꼭 맞게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현지 선교사로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언어를 초월한 '그 사랑'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십자가는 언어가 아닌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 미쉬콜츠 선교센터가 정말 귀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으로 오신 분들도 선교센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건물을 선교센터로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번 단기팀은 32명 전체가 일 주일 동안 선교센터에서 함께 숙식을 했습니다. 선교센터가 생기고 첫 손님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단기팀이 오기 전에 단기팀 숙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 준비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창문마다 모기장도 설치하고, 샤워장이 하나 뿐이어서 화장실을 개조해서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샤워장이 늘게 되어 온수기도 하나 더 설치해야 했습니다. 주방에 필요한 여러 집기들과 슬리핑백을 깔고 잘 수 있는 매트리스 등 준비할 게 참 많았었습니다. 덕분에 서른 명이 넘은 대가족이 한 주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숙식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단기팀 숙식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선교센터 공사를 마친 후부터 미쉬콜츠 집시교회 모임이 계속되고 있으며(왼쪽 위 사진), 몇 달 전부터는 예배 처소가 없는 헝가리교회까지 주일 예배 등 각종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왼쪽 아래).

헝가리 교회 담임목사 사모님 가브리엘라는 류코번녀 집시교회를 위해서 저희와 동역하는 분이라고 이미 소개했었지요. 사모님 뿐만 아니라 담임이신 아틸라(Atila) 목사님까지 저희 사역을 위해 귀한 동역을 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 저희 선교센터와 연결되었다면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온 교회가 감사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선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단기팀 숙식은 물론이요, 앞으로 선교센터가 여러 가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오른쪽: 아틸라 목사님 내외분과)

3. 미주 GMP(GMP America)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미주 GMP와 FMB(한국 침례교 총회 해외선교회), 이렇게 두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입니다. 지난 5월에 태국 방콕에서 제1차 미주 GMP 총회가 열렸습니다. 미주 GMP가 창립된 지 10여년 만에 처음 열리는 총회였는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총회였는지 모릅니다.

이사진을 비롯해 본부 스탭,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회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니 말이 필요없겠지요. 이렇게 좋은 선교단체를 허락하시고, 그런 단체에 소속 선교사가 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선교 단체가 건강해야 선교사가 건강하고 필드에서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소속 선교단체(미주 GMP, FMB)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교지 방문차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선교사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할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사역일 뿐 실제적으로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지 방문(Field Mission Trip)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4월 유한침(유럽 한인침례교선교사회) 총회 및 선교대회 강사로 오셨던 김이태 목사님(경주 제일침례교회) 내외분께서 대회를 마친 후 헝가리 집시촌 선교지를 방문해 주셔서 귀하게 섬겨주셨고(왼쪽 사진), 또한 6월에는 루디아회 회원들께서 오셔서 집시촌을 돌아보며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오른쪽 사진).

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헝가리에 와서 여덟 번째 무궁화 시즌입니다. 우리는 무궁화를 '우리 나라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지 않더군요. 그런데 헝가리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무궁화가 지천입니다. 그래서 단기팀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 같이 "아니, 무궁화는 우리 나라 꽃인데 헝가리에 더 많네!"라고 하십니다.

매년 어김없이 헝가리 마을마다 무궁화가 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난 8년 동안 헝가리어도 잘 못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를 통해서 매년 많은 꽃들을 피우셨습니다.

라크(Lak) 마을 집시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출석했던 처비(Csabi) 형제와 머리카(Marika) 자매 부부의 딸 페트라(Petra), 7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난 5월에 아기 엄마가 되었습니다(오른쪽: 페트라 & 엄마 머리카, 갓 태어난 아이). 페트라가 아기 엄마가 된 것처럼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회 개척할 때 아기였던 아이들은 매년 쑥쑥 자라서 어린이부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다른 페트라, 역시 라크 교회 개척 때부터 나온 아이입니다.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저희를 도와서 예배 준비 등 많은 헌신을 하는 귀한 자매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 편지에 소개하며 기도 부탁드렸던 바로 아이로 저희가 장학금을 후원하면서 장차 집시교회 지도자로 만들고자 양육하는 아이입니다. 페트라가 올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가을 학기부터 경찰 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갔으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경찰이었답니다. 저희는 페트라가 집시촌 교회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왼쪽 사진: 페트라 & 여동생).

페트라와 집시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처럼 아름답고 끈기 있게 잘 자라서 선교지의 꽃이 될 수 있도록...

6. 기도 제목입니다.

(1)다음 주에 오는 한국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님) 청년부 단기팀 사역을 위해서.
(2)10월 중순에 계획 중인 집시촌 7개 교회 평신도 지도자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3)미쉬콜츠 선교센터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4)에델리니 교회의 예배처소를 위하여.
(5)집시촌에 세워진 7개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6)각 교회에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7)함께 동역하는 헝가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사무엘, 까로이, 안드라시, 가브리엘라)을 위하여.
(8)10-10프로젝트(10개의 집시촌 교회/10명의 집시족 목회자)가 성취되도록.
(9)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과 자녀들(한울, 솔지)을 위하여.
(10)저희가 소속된 미주 지엠피(GMP America)와 한국 침례교 해외선교회(FMB)를 위하여.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평화!

헝가리 집시선교사
박완주 박미영 드림